



카자흐스탄



2012 교우골프대회 개최

2012 카자흐스탄 교우회(회장 김상욱 국문 86) 골프대회가 8월 19일(일) 알마티에 위치한 '자일라우' 골프장에서 김상욱 회장을 비롯한 8명의 교우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문경남(노문 91) 교우의 이임 환송골프를 겸해서 열린 이날 대회에서 김상욱 회장은 "골프를 통해 선배들간의 뜨거운 정을 더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면서 "이 대회를 위해 찬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류희근(농경제 74)고문은 "모든 교우들이 더 건강하고 더 건승하기를 기원한다"며 "매일 윌레골프대회를 갖자"고 즉석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1번 홀에서 문경남 교우가



버디를 운송환(노문 86) 교우가 파를 잡는 등 모든 참가교우들이 산뜻하게 대회를 시작하였고 전반 9홀 후 클럽하우스에서 가진 중간 집계 결과, 김상욱 회장이 4오버, 류희근(농경제 74)고문, 전병현(농경제 86), 전중환(노문 89) 교우가 6오버를 기록하였으나 최종 합계에서는 전병현 교우가 15오버로 우승, 김상욱 회장이 17오버를 기록해서 2위, 류희근, 전중환 교우가 18오버로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카자흐스탄 신한은행 법인을 맡고 있는 정지호(경영 82)교우는 "이임하는 문경남 교우가 온그린 시키면 무조건 오케이를 주자"며 분위기를 화기에애하게 만들었고 운송환 교우는 "오케이의 반대말은?" "마크"라는 골프퀴즈를 내며 참가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물했다.

대회 후 교우들은 시내 한 식당 '경복궁'에서 문경남 교우 환송연을 겸한 뒷풀이를 가졌다.

영국



오창희 교우 올림픽 티켓 기증

올림픽 열기가 가득했던 런던에 올림픽 열기보다 더욱 뜨겁게 고대정신이 타올랐다.

올림픽으로 한국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런던을 방문, 올림픽 기간 올림픽의 열기보다 고대 교우들의 선배배 만남을 통해 교우들의 열기가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 가운데 백미는

오창희(경영82)교우의 올림픽 티켓 기증이였다.

올림픽 경기 티켓 구하기가 정말 그대로 '하늘에서 별따기'였던 런던 현지 상황을 접한 한국경기 티켓 판매를 대행한 세방여행사의 대표 오창희 교우는 선뜻 다수의 한국 경기 티켓을 영국교우회에 제공하여 영국 교우들은 종합 5위라는 뛰어난 성적을 직접 현장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왼쪽부터) 이충근 영국교우회장, 오창희(경영 82) 교우, 한정동 교우(일문 87)

교 우 동 정

▲ 김재우(경영 62) 교우 :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유럽총연 김재우 명예이사가 8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제 9기 이사장으로 재선 출되었다. 방문진 이사장의 연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 선동규(노문74) 교우 : 전주 MBC 사장을 역임한 유럽총연 선동규 명예이사가 8월 14일 제 9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선임되었다. 선 교우는 1993년부터 3년간 MBC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 김재신(정의 75) 교우 : 외교통상부 차관보인 김재신 교우가 주독일대사로 발령받아 9월 3일 독일에 부임한다. 김 교우는 외교통상부 야태국장,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역임하였다.

▲ 박석환(법학 75)교우 : 외교통상부 1차관인 박석환교우가 주영국대사로 발령받아 9월초 영국에 부임한다. 박 교우는 외교통상부 의전장, 주 일본대사관 공사, 주 베트남대사, 외교통상부 1차관을 역임하였다.

▲ 윤영귀(언어 90) 교우 : 전 노동부 진주 고용노동지청장 윤영귀 교우가 8월 프랑스 파리 OECD대표부에 부임하여 고용노동주재관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 홍상희(영문 95) 교우 : 외교부 개발협력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던 홍상희 교우가 8월 프랑스 파리 OECD 대표부에 부임하여 OECD 대표부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김형철(법학 93)교우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사로 재임하고 있는 김형철 교우가 법관연수차 8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였다. 김 교우는 바르셀로나에서 1년간 법관연수 및 유럽의 사법제도를 연구할 계획이다.

터키



교우회장배 골프대회 가자

터키 교우회(회장 김성렬 국문 73)는 8월 4일(토) 제4회 교우회장배 골프대회를 개최하여 교우들간의 우의를 다졌다.

8명의 교우가 참가하여, 각 4명씩 A, B팀으로 나눠 진행한 이번 대회에서 장원신, 최광복, 조충근, 박상현 교우와 도중섭교우 부인으로 구성된 B팀이 김성렬, 김성훈, 도중섭, 천민철 교우와, 김성렬 회장부인으로 구성된 A팀을 2



타차로 앞서 최근 두 대회에서의 패배를 설욕하였다.

한편 개인기록을 중심으로 시상한 결과로는 우승은 박상현 교우, 준우승은 천민철 교우

에게 돌아갔다.

한편 이날 골프대회를 마친 뒤 천민철 교우의 승진 축하연이 김성렬 회장의 초청으로 열렸다.

독일



교연전 9월 15일 개최 예정

독일교우회(회장 이유향 국문 80)는 2012년 정기 교연전을 연대동문회와 함께 9월 15일(토)에 개최한다.

올해부터 골프경기를 정식종목으로 채택하여 정기전이 열리기 1주전인 9월9일(일) 골프경기를 치르고, 이 결과를

정기전에 합산하여 종합 우승을 가리게 된다.

올해에는 연대동문회 주관으로 9월 9일 골프경기, 9월 15일 족구, 발야구, 달리기, 축구 5개 종목에서 친선을 다지는 경기가 펼쳐지게 된다.

한편 최근 젊은 교우들의 독일 진출이 눈에 띄게 많아져 교우회 활동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최근 독일에 진출한 교우들은 다음과 같다.

▲이근형(산공 90) 교우:금년 초 중소반도체업체인 위즈넷 이사장으로 부임

▲이승택(농생물 91) 교우:삼성물산 밀라노 지사에서 근무하다 독일 법인으로 부임

▲조동운(경영 91) 교우:5월 삼성전자 독일 법인으로 부임

▲김안나(독문 04) 교우:8월(주)미백 독일 법인에 입사

▲김송희(독문 07) 교우:4월부터 제일기획 법인에서 근무

최첨단 미래의학의 산실-의대 본관 완공



한국 의학교육의 새 장이 열렸다.

모교 의과대학(학장 한희철·의학77) 본관이 3년여의 공사를 마치고 지난 7월 10일(화) 안암동 의료원 경내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완공된 의대 본관은 지하 3층, 지상 7층 건물로 연면적 21,561㎡(약 6,523평) 규모다.

첨단 무선 통신과 인터넷은 물론, 기온에 따른 인공지능 건물물관리가 가능한 국내 최고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현한 인터랙티브 건물이다.

무엇보다 의대생들의 학습환경과 각종 실험 기자재와 교수 및 연구원들의 연구 공간을 대폭 강화해 국내 최고의 연구중심 의과대학으로 성장하는 기반을 갖추었다.

모교 의과대학은 의대 본관 준공에 이어 오는 10월에는 제2의과관 신축에 나선다.

모교 의대는 이어지는 후속 사업을 통해 모교 의과대학을 의학, 생명과학, IT 등을 아우르는 국제적 수준의 메디컬 콤플렉스로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1938년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로부터 출발한 모교 의과대학은 본관 준공을 계기로 기초의학에서 최첨단 미래의학까지 세계 수준의 의학교육 기관으로 도약할 기틀을 마련한 것이다.

특히 의대 본관 건립에는 의대 교우들이 조성한 100억원의 발전기금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의과대학교우회(회장 김정목·의학66)는 지난 2004년부터 의대 발전기금 조성에 착수해 본관 건축비 300억 중 100억원을 학교에 기부했다.

30억을 기부한 유광사(의학63) 교우를 비롯한 의대 교우들의 힘이 모여 완공된 모교 의대 본관은 이제 미래의 노벨의학상 수상자로 성장할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것이다.

의과대학 본관 신축으로 모교 의학교육의 새로운 터전이 마련됐다. 본관 건립을 계기로 모교 의대는 제2, 제3의 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의학연구 중심대학으로 발전할 전략을 세우고 있다.

<1970년대>

세계 최초 유행성 출혈열 백신개발 말라리아, 간염과 더불어 세 계 3대 전염병으로 불리던 유

행성출혈열. 1976년 유행성출혈열의 바이러스인 한타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한 모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성과로 바이러스학의 영역이 확대되고 인류가 세계적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1980년대>

시대를 앞선 법의학 연구 법의학연구소는 법의학 각 분야의 이론과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 연구과정을 통해 얻어진 법의학적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여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사

회 발전에 기여해 왔다. 1987년 민주화운동의 시발점이 된故박종철씨 고문치사 사건을 비롯해 역사에 남을 법의학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를 잡아왔다.

현재는 사망 후 경과시간 추정을 위한 연구와 DNA칩을 이용한 개인식별 연구 등을 지속하고 있다.

<1990년대>

첨단의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1994년 4월부터 도서관 전산화를 시작한 의과대학은 1995년 12월 도서관 전산화 프로그램 '빈티지'를 도입했고, 도서관 자료와 국내외 최신 의료 정보를 연구실에서 신속하게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2000년대 이후>

미이라를 최초로 진찰하다 국내 최초로 440년 된 광평윤씨 미이라 연구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모교 의료원 연구팀은 2004년에는 국내 최고인 600년 된 학봉장군 미이라를 치아와 뼈를 이용한 탄소연대 측정과 내시경 검사를 통해 사인을 규명하는 등 국내 미이라 연구에

있어서 독보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독일도 놀란 인공장기 개발기술 생명장기를 치료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의학적 접근법 등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 인공장기센터(센터장 신경·의학 75)는 2004년 10월 세계 최소형 인공심장의 개발하는 등 세계 최정상급의 인공심장 및 인공장기 연구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한국 인공장기센터는 보건복지부 휴먼텍 21사업의 지원을 받아 2002년 설립된 국내유일의 인공장기 연구개발 기관으로, 기계식 인공심장 개발 및 산업화, 줄기세포 및 지지체를 이용한 조직공학과 나노바이오로지 등 NT, BT, IT 등이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에는 한국 인공장기센터가 개발한 인공심장을 이식한 송아지가 생존기간 기록을 20년 만에 경신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인공심장을 개발하는 독일 베를린하트사로 부터 "고려대학교 한국인공장기센터의 과학적인 연구업적이 최고 수준"이라고 이례적으로 호평받기도 했다.

모 교 소 식

한국 의학과 함께 한 의과대학



회비는 교우 사랑의 시작입니다

2012년도 지부 분담금 및 회비를 안내 드립니다.

회비는 교우 사랑의 시작이며, 여러분들의 사랑은 유럽총연합회 발전의 소중한 기금이 될 것입니다.

지부 분담금	회 비
회원 50인 이상 지부 영국 · 프랑스 · 독일 · 러시아	회 장 € 3,000 부 회 장 € 200 감 사 € 200
회원 50인 미만 지부 남아공 · 이탈리아 ·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 폴란드 · 헝가리 카자흐스탄 · 스웨덴 · 터키 우크라이나 · 아랍 에미리트	상임이사 € 100 후 원 금 자문위원 정액 없음 명예회원 1백만원

유럽총연합회 은행 구좌

KOREA EXCHANGE BANK(D) AG

구좌번호 : 32 01 01 06 63

예 금 주 : Cho In-Hak KUAA

IBAN : DE38 5241 0400 3201 0106 63

SWIFT : KOEXDEFA



남준성 (노문 88)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 우즈베키스탄에서 생활한지 이제 4년 남짓, 아직도 모든 것에 서툴고 한국이 그렇기만 한 외국 생활 초년병이 유럽총연합회 교우회보에 글을 쓰는 다는 것에 선배님들의 그동안 쌓아올린 명성에 누가 되는 것은 아닌가하여 조심스럽게 글을 씁니다.

이곳 우즈베키스탄에는 고대교우회가 아직 결성되어있지 않고, 주변에서도 교우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 교우회 소식에 대해 둔감한 채 생활하던 차에 우연한 기회에 유럽총연합회 활동소식을 듣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총연합회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매달 받아보는 유럽총연합회 교우회보를 통해 유럽 및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교우들의 활동을 접하게 되니 마치 신선지가 열리는 듯하였고, 현재 저의 어려움은 이미 선배님들도 외국생활에서 다 거처간 과정이었음을 알게 되어 크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선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지닌 곳으로 광활한 영토와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미가 조화를 이루고 있어 이곳을 방문한 모든 사람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동쪽은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 남쪽은 아프가니스탄, 남서쪽은 투르크메니스탄, 북쪽과 북서쪽은 카자흐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독립국가연합 15개 국가 중 다섯 번째로 큰 국토를 가지고 있는데, 동서로 약 1,425km 남북으로 925km, 총면적이 447,400km로 한반도 전체의 두배가 조금 넘는 크기입니다.



나보이 경제특구

유럽총연합회는 유럽,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교우들을 잇는 징검다리가 되고 이들 교우간의 교류를 위하여 "교우 릴레이"를 발간하고 있다. 교우 릴레이는 글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유럽총연합회 교우들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일의 김인홍 교우, 영국의 임시창 교우, 프랑스의 신근수 교우, 러시아의 이세훈 교우, 스웨덴의 유명연 교우, 오스트리아의 김신자 교우, 터키의 김성렬 교우,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의 민경준 교우, 쿠웨이트의 박정길 교우, 의정부지검 검사 우남준 교우, 프랑스의 서청호 교우, 독일의 박돈희 교우, 네덜란드의 김영원 교우, 프랑스 교우회장 김재호 교우, 우크라이나의 박승현 교우, 전독일교우회장 오상덕 교우, 명예회원 나이저리아의 정병훈 교우, 모교 교수 김세원 교우, 헝가리 교우회장 이상일 교우, 행사부 국장인 정재근 교우, 페루 교우회장 김태원 교우, 사우디아라비아의 백재현 교우, 카자흐스탄 교우회장 김상욱 교우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남준성 교우가 바톤을 이어 받았다. 남 교우는 2008년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하여 우즈베키 경제 개발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교우 릴레이 (24)

우즈베키스탄 나보이 경제특구에서

우즈베키스탄은 한때 중앙아시아의 중심이자 소련시절만 해도 중앙아 최대 부국이었으나, 1990년대 독립 후 특히 2000년 들어 카자흐가 자원개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면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고, 이를 극복하고자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경제개발을 최우선과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진출하기까지는 많은 여정을 겪었습니다.

1988년 3월 이른바 '88 꿈나무'로 모교 노문과에 입학한 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고대응원과, 고대정신을 배웠으며, 서관 농구장 위인촌 묘소에서 학과 선배님들과 등글게 둘러앉아 막걸리 신고식을 치르며 학창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88 꿈나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어쩌면 저희 88학번들은 신세대의 첫 주자가 아니라, 구세대의 마지막 주자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한국은 울림떡개최 준비의 막바지로 사회 전반이 들뜬 분위기에 어수선했고, 교정은 자욱한 최루탄 향기가 봄철 개나리와 진달래 냄새와 함께 안암골을 진동했습니다.

마지막 학생 운동권 세대, 마지막 문무대 교육, 그리고 마지막 교련 수업 등의 냉전 마지막 시대를 살았던 저희들은 이념

갈등과 그 변화속에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며 각자의 미래를 준비하였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결혼을 하고 미국 유학 길에 올라 미시간주 E.미시간 대학원에서 경영정보 석사 마친 후 글로벌 S/W 회사에 채용되었으나, IT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무렵 귀국하여, 르노삼성자동차 전산기획팀에서 6년간 사내 전산시스템 기획 책임자 근무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동경과 도전을 향한 저의 마음은 다시금 신선지를 찾아 떠나도록 하였습니다.

마침 의료기 회사 대표인 친구의 추천으로 2008년 청각장애를 위한 인공와우 생산하는 MST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지사를 설립하며 우즈베키스탄으로 진출하여, 보청기, 인공와우를 비롯 첨단 진단의료 장비인 한국산 MRI, 엑스레이 설비 등, 의료 장비 소개와 판매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에 국산 MRI 2대를 대도시인 사마르칸트, 부하라에 최초로 설치하던 그 감동은 어려운 이곳 생활속에서 최초로 맛보았던 기쁨이었습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은 한국의 1970년대를 연상할만큼 경제개발이 한창입니다.

중앙아시아 국가 중 가장 큰 시장규모(인구 2700만명), 풍부한 자원(금 매장량 세계 5위, 가스·우라늄 매장량 세계 10위)을 갖추고도 경제력은 주변국에 크게 뒤쳐진 우즈베키스탄은 2009년 당시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100달러, 경쟁국인 카자흐스탄(1인당 GDP 8,500달러)의 8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에게는 자원을 단기간에 집중 투입해 압

축성장을 이루는 노후자가 절실했으며, 결국 우즈베키 정부는 경제특구를 통해 짧은 시간에 집약 성장을 이룬 한국의 경험에서 그 해법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나보이경제특구'를 탄생시켰습니다.

구(舊) 소비에트연방에서 독립한 이후 '경제주권' 확보를 위해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한 우즈베키 정부는 2009년 12월, 카리모프 대통



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나보이 경제특구 개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보이 시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국제적인 교통 인프라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베이징과 파리를 연결하는 E-40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주변국과 연결하는 국제철도 노선도 건설되어 있고, 1962년에 건설된 나보이 국제공항은 2000km 반경에서 세계 11개국의 수도 및 중앙아시아, 중동, 인도와 중국의 40개 이상의 주요 도시를 연결하며 중앙아시아의 중심 공항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수도 타슈켄트에서 500km 떨어진 제2의 경제중심지 나보이를 이러한 지정학적 잇점을 통한 단순히 물류허브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유소 등 화학·광업 생산물류를 수출하고 특히 인근 부하라나

사마르칸트 등 실크로드의 중심지였던 역사적인 도시들과 관광을 연계시키는 종합적인 발전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즈베키스탄은 수천년 이어져온 실크로드의 중심지역이며 지리적으로 유라시아지역의 중심에 위치해있어 유럽이나 중동지역 진출에도 발판이 되고 있으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총 564ha인 나보이경제구역을 특구로 지정하고 10년간 무관세 등 특별조세 및 관세 체도를 도입해 이곳에 진출하는 한국기업들에 향후 30년간 거의 한국영토로 간주해도 될 만큼의 파격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나보이특구는 고대교우들의 도전 정신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의 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2011년 압축천연가스 용기 제조회사인 NK에 입사하여, 우즈베키스탄 국가 프로젝트인 나보이 특구에서 진행되는 자동차용 압축천연가스 연료 실린더 공장 설립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나보이경제특구의 계획과 실행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자회사인 ENK 지사장으로 나보이 공장 프로젝트를 지원 및 ENK 용기 영업을 통해 국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리며, 선배 한국 기업인들이 다

져놓은 우리에게 너무도 친근한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일구어가고 있습니다.

나보이 공장이 완공되면, 이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아시아 국가 및 CIS 국가들로 시장을 넓혀가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하루 빨리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이 다른 환경 속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마다, 많은 선배들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퍼져있으며, 용감하고 때론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고대 정신으로 도전하여 한국의 눈부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고대 교우들이 이제는 지속적으로 한국을 넘어 세계를 바꾸는 고대 교우가 되길 함께 기원합니다.



고려대학교와 런던올림픽의 인연은 꽤나 특별하다. 일장기를 달고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한국이 'KOREA'라는 호칭으로 올림픽에 처음 나선 것이 1948년 런던대회였다.

한국의 첫 올림픽서 첫 메달의 주인공이 바로 고대 교우인 김성집(보성전문 37·현 대한체육회 고문)교우였다. 김성집교우는 역도 미들급에서 동메달을 따내며 한국의 최초 올림픽 메달을 선사했다.

그리고 한국이 자신의 국호로 처음 참가한 런던 올림픽 선수단의 기수는 다름아닌 손기정(보성전문 37) 교우였다.

그리고 금번 런던 올림픽에서는 한국 축구가 3위로 최초의 메달을 따내는 역사를 이룩하였고 그 현장에는 고려대 교우 3인방이 있었다. 바로 홍명보(체교 87)감독과, 김봉수(체교 89)GK 코치 그리고 박주영(체교 94)이다.

이렇듯 런던올림픽과 고려대학교의 인연은 무척 특별하기만 하다.

유럽총연합회에서는 최초의 올림픽메달리스트 김성집교우와 축구종목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따낸 고대교우들의 활동을 살펴본다.



한국 올림픽의 '살아있는 역사' 한국 최초의 메달 김성집 교우
64년 전 런던에서 김성집교우는 내내 쫓겼고 짠했다. "36년의 식민지를 끝내고 우리 국호와 국기를 세우고 올림픽에 설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눈물이 났다"고 했다.

런던올림픽과 **고대호랑이**

지금까지 선수로, 임원으로 무려 11차례 올림픽에 참가했지만 서울올림픽과 더불어 런던올림픽이 가장 감격적이었다고 회상하다.

당시 한국선수단 67명(임원 15명, 선수 52명)은 기수 손기정을 따라 입장했다. 엠파이어 스타디움을 걸으며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출국 전부터 열기가 뜨거웠다. 한 장에 100원이었던 올림픽후원권(복권)이 100만장이나 팔렸고 수익금이 8만 달러에 이르렀다. 시민환송식에 수만 명이 나와 태극기를 흔들었고, 헌법 제정으로 여념 없던 초대 국회도 선수단에 격려 메시지를 건넸다.

실수로 겨울용 양복지로 만든 단복이 제공됐지만 선수들은 땀범벅을 하고도 그저 싱글벙글이었다고 한다.

개막을 하루 앞둔 1948년 7월 28일, 항일민족지 '국민보'를 보면 당시 열기를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이며, 초민족적인 평화의 싸움터인 국제올림픽대회에 반만년 역사 이래 처음으로 빛나는 태극기를 가슴에 붙이고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어깨를 가지런히 하여 승부를 다투기로 되었음은 참으로 조선 체육사상에 특별대서 할 만하다."

런던으로 가는 길은 험난했다고 한다. 부산에서 출발해 하카타-요코하마(이상 일본)~상하이(중국)~홍콩까지는 배를 탔다. 홍콩에서 비행기를 탔지만 그것도 고생길이었다. 방콕(태국)~콜카타~뭄바이~카이로(이집트)~암스테르담(네덜란드)을 찍고서야 런던에 도착, 무려 스무 날이 걸렸었다.

사실 김성집교우는 그보다 12년 앞서 올림픽 무대를 밟을 기회가 있었다. 조선 대표로 뽑힌 김교우는 일본에서 열린 '베를린올림픽 파견 예선대회'에 나섰다. '조선이 낳은 소년역사'란 별명으로 불린 18세

소년은 무거운 중량을 번쩍번쩍 들어올리며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지만 조선인에게 지는 게 싫었던 일본인들은 '김성집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이므로 출전할 수 없다.'는 잔피를 냈다. 번외경기에 나서 317.5kg을 들었지만 262.5kg을 든 다른 선수가 우승했다. 억울함을 풀고 싶었던 1940년과 44년 올림픽은 2차 세계대전 탓에 무산됐다.

김성집 교우는 "1948년 런던올림픽 때는 이미 서른 살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독하게 훈련했다"고 했다. 1948년 국내 올림픽선발전에서 용상 세계신기록(145kg)으로 우승한 김교우는 결국 꿈에 그리던 올림픽에 나가게 됐다.

현지 훈련 중 허리를 삐끗했지만 아무렇지 않은척 했다. 주특기인 추상(클린 자세에서 발 구르지 않고 바벨을 들어 올리는 것·현재는 페치)에서 122.5kg을 들어올리며 올림픽 기록을 새로 썼다. 그러나 인상은 112.5kg, 용상은 145kg으로 두드러진 기록을 내지 못했다. 이집트의 엘 투니와 380kg 동물이 됐고, 김용의 몸무게가 1.92kg 가벼워 동메달을 거머쥐었다.



김교우는 "올림픽을 막았던 일본인의 얼굴이, 태극기를 들고 환송하던 시민들이 떠올라 한참을 울었다"고 회상했다. 64년전 일이다.

런던 올림픽의 호랑이 3인방 홍명보, 김봉수 그리고 박주영
김성집교우의 최고의 올림픽 메달을 젊은 고대교우들이 64년 뒤 또다시 런던올림픽에서 축구종목 최초의 메달로 화답했다.

2-0 대한민국 동메달. 말이 필요 없는 승부였다. 자존심이 걸려있는 한일전인 만큼 기쁨은 배가 됐다.

홍명보 교우의 '믿음의 리더

터리지의 슈팅을 선방한 이범영을 통해 빛을 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외에서의 차범근(체교72)교우의 활약도 눈부셨다. 해설위원으로 예리한 분석과 정확한 대안제시로 홍명보호의 쾌거를 지원하여 국민들로부터 큰 찬사를 받았다.

아름다운 퇴장 장미란교우
장미란(체교 05)교우는 마지막 시도에서 역기를 떨어뜨리고는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그 표정은 이내 미소로 바뀌었다.

스스로에게 잘 싸웠다고 말하는 듯한 미소와 함께 관중석에 절을 했다.

그동안 자신과의 싸움을 회상하듯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동고동락했던 바벨에 손키스를 건넸다.

이어 관중들에게 두 손을 흔들며 그는 경기장을 내려왔다.

8월 5일 영국 런던 엑셀 사우스 아레나에서 열린 여자 역도 75kg 이상급에서 장미란은 인상 125kg, 용상 164kg을 들어올리며 합계 289kg으로 4위에 올랐다.



말끔히 털어냈다.

4강에 오르기까지는 홍감독과 함께 팀을 이끌었던 김봉수교우의 숨은 노력도 이번 성과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GK 코치로 이번 올림픽에 영류한 김봉수교우의 지도는 영국과의 8강전에서 두번째 PK 선방을 한 정성룡과 승부차기에서 영국의 다섯 번째 키커 스

지난 7년 동안 장미란교우만 큼 화려한 이력을 가진 역대 선수는 드물었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은 물론 세계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그리고 아시안게임을 정복하면서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이렇듯 장미란교우는 한국 스포츠 역사에 지워지지 않는 족적을 남겼다.